



# Contents

## 02 KAMA NEWS

- 2008년 책임운영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 주요공항 항공기상 예보기술 지도·점검 실시
- 인천공항기상정보실 개소 / 항공기상정보활용자과정 운영

## 05 Special Theme\_가을철 기상 전망 및 특성

- 가을철 기상전망
- 주요공항의 가을철 기상특성

## 08 International co-operation

- 몽골기상청 항공기상센터 직원 항공기상청 방문
- 아-태지역 항공이행통신그룹 통신기상 본과회의 참석
- WMO 항공세미나 참석  
: CAVOK의 나라 오만을 다녀와서

## 13 KMA Focus

- 동네예보
- 날씨 on 개국 & 131 기상콜센터 개소

## 15 기관탐방

- 청주공항기상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16 Sky Episode

## 19 PHOTO NEWS



## 2008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항공기상청 최우수기관 선정

항공기상청(청장 이성재)은 2008년 책임운영기관 행정형 사업기관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07년 항공기상청은 광주, 포항, 사천공항관서의 신설로 군 공항 항공 기상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무안공항기상대의 신설로 항공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기관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항공기상정보활용자 과정을 정기 운항, 부정기운항 등 고객수준에 맞는 항공기상교육을 확대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적 정착 및 항공기상업무 발전을 위한 항공기상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책임 운영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앞으로도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의 품질향상과 세계표준에 충실한 항공 기상업무 수행을 위해 신속적 조직운영 등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항공 운항의 안전성·정규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항공기상청 책임운영기관 연혁 ◎

- 2000. 07. 항공기상대 신설
- 2001. 01. 책임운영기관 시행
- 2007. 03. 항공기상관리본부 격상
- 2007. 07. 200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항공기상관리본부 최우수기관 선정
- 2008. 03. 항공기상청으로 명칭 변경
- 2008. 07. 200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항공기상청 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 <책임운영기관 이란>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대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관장을 공개채용
-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운영제도 =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생산성과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자체수입 증대 도모 =

## 주요공항 항공기상 예보기술 지도·점검 실시

항공기상청은 현지공항의 항공기상 예보업무 수행 현황 및 국제규정 준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예보현안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현업연구과제의 추진 경과 등을 점검하고자 **항공기상 예보기술 지도·점검**을 2008년 7월 실시하였다.



직급	성명	기간	기관
예보과장	임용한	7.31	김포
총괄예보관	김한준	7.21~22	제주
"	남영만	7.23~24	울산
"	정장근	7.25~26	양양
"	이흥열	7.24~25	무안
"	윤정빈	7.22~23	여수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주요공항에 대한 항공기상 예보기술 지도·점검은 총괄예보관들을 중심으로 항공예보·특보의 사후분석 및 악기상 시나리오 작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근무여건에 따른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공항마다 각 지역에 따른 지형적인 영향을 고려한 기상현상(바람, 시정, 기온 등)예보에 대한 국지예보법을 찾기 위해 현지 예보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예보사와 전국 항공예보를 총괄하는 총괄예보관의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공항별 예보가이던스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완으로 항공예보기술향상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공항마다 수행 중인 현업연구과제의 중간점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총괄예보관과의 심도 있는 토의로 완성도 높은 현업연구가 이루어져, 항공예보에 활용되어 고품질의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공항에서는 예보평가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방법 모색과 체계개선을 건의하였고 공항경보에 대한 발표 시 과중되는 업무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one-stop 시스템의 도입을, 항공기상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치예보모델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지예보 우수 예보관 양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고, 매년 이루어지는 현업연구과제를 현업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모색을 건의하였다.

항공기상청에서는 새로운 예보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방법으로 모색 중에 있으며, 반복적이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들에 대해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불필요한 업무 없애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항공기상예보기술점검으로 인해 공항별 지형적 특성에 대한 파악으로 공항별 항공예보에 대한 특색을 좀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항공예보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 중인 현업연구과제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려는 직원들의 열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 신 탑승동 계류장관제탑에 인천공항기상정보실 개소!



항공기상청에서 인천공항 개항 이래, 바람·시정·일기현상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에 꼭 필요한 항공기상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2활주로를 중심으로 공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항공기상관측이 실시되었고, 이 자료를 통해 항공기의 운항 및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계류장이 협소하여 지상관제에 어려움에 따라 제3활주로의 수요가 요구되는바, 제3활주로의 준공이 2008년 6월에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따른 관측업무를 위해 항공기상관측의 위치가 항공기상청(예보현업실)에서 항공기상정보실로 이관하여 6월 6일부터 정식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항공기상정보실은 신 탑승동A 계류장관제탑 10층에 위치해 있어, 폭 넓게 시야가 확보되고 항공기의 이동이 한 눈에 들어 오기 때문에 최상의 관측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6월 정식관측에 앞서 새로운 관측에 대한 적응훈련과 환경 조사를 위해 5월부터 사전관측업무를 실시하였고, 6월 6일부터 제3활주로의 개소와 함께 정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관측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 2008년 1기 항공기상정보 활용자과정 운영



항공기상청에서는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기상에 대한 실무지식을 보급하고 인터넷 기반의 인프라 확대에 따른 온라인 고객의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항공기상정보 활용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제1기 항공기상정보 활용자과정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항공운송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상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항공기상정보 활용고객과 공동이해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6.25~27까지 3일간 운영되었다.

항공기상에·특보, 관측 그리고 기상레이더 영상 활용방법, 항공기상관측장비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과정에는 경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공항공사 업무담당자 등 19명이 참가하였다.



동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공운항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안전운항 관련 기관과의 항공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항공기상청은 향후 교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 확보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고객의 요구충체에 귀 기울여 고객만족도 향상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 2008년 가을철 날씨

### - 기온의 변동 폭 크고 11월 기온 높다 -



기상청(청장 정순갑)은 가을철(2008년 9월~11월)예보를 발표하였다. 이번 가을철에 우리나라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며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난 2007년 가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라니냐 현상은 지난겨울 최대로 발달한 후 봄철부터 점차 약화되어 여름철에는 엘니뇨 감시구역(5N~5S, 170W~120W)의 해수면온도가 정상상태를 회복하면서 현재까지 정상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올 가을철 중에는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전반적으로 평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발생 수는 9~10개 정도로 평년(11.4개)보다 적겠으며 그 중 1개(평년 1.0개) 정도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가을철에 예상되는 월별 기상전망은 다음과 같다.

9월에는 상순에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기불안정이나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음. 9월 중순과 하순에는 중국 내륙에서 접근하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변동 폭이 크겠음. **9월 중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9월 하순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겠음.**

10월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으나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기온의 변동 폭이 크겠으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후반에는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으며 이 때 내륙 및 산간 지방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음.

11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대륙고기압의 세력 약화로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서해안과 강원도 영동 산간지방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KMA PRESS RELEASE

### 기상정보자료

기상청

해상을 연구하며 국민을 위한 기상청  
 배포일시 2008. 8. 22(화) 11:00 (총 13개)  
 보도시점 배포시간 이후부터  
 담당부서 기후적 기후해석과  
 팀 장 지재상 운영  
 전화번호 02) 281-042

**올 가을 날씨**  
- 기온의 변동폭 크고 11월 기온 높다 -

◇ 기온 : 평년(8~19℃)과 비슷하겠음  
 - 9월과 10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 11월에는 평년보다 높겠음  
 ◇ 강수량 : 평년(37~436mm)과 비슷하겠음

기상청(청장 정순갑)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가을철(2008년 9월~11월)예보를 발표하였다. 이번 가을철 우리나라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며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난 2007년 가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라니냐 현상은 겨울동안 최대로 발달한 후 봄철부터 점차 약화되어 여름철에는 엘니뇨 감시구역(5N~5S, 170W~120W)의 해수면온도가 정상상태를 회복하면서 현재까지 정상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올 가을철 중에는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전반적으로 평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발생 수는 9~10개 정도로 평년(11.4개)보다 적겠으며 그 중 1개(평년 1.0개) 정도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공항의 가을철(9~11월) 기상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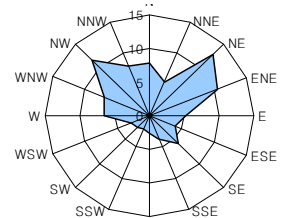
### SPECIAL THEMES

우리나라는 9월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온화하고 쾌청한 날씨가 지속되는 날이 많아진다. 10월 하순부터 시베리아에서 확장하는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한랭한 북서 계절풍이 불고 기온도 급강하하여 초겨울 날씨로 변한다.

주요공항의 가을철 기상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인천공항]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인천공항의 가을철 평균기온은 14.2°C이며, 일교차가 10°C 이상 되는 날이 많으며,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야간에는 복사냉각에 의한 복사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가을철 평균 강수량은 66mm이고, 연도별로 강수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인천공항의 바람은 여름철에 주로 서풍과 남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으나 가을철은 북서풍과 북동풍 등의 북풍계열이 우세하고 평균풍속은 7.3kt이다.



<2001~2007년 인천공항 풍향>

#### [김포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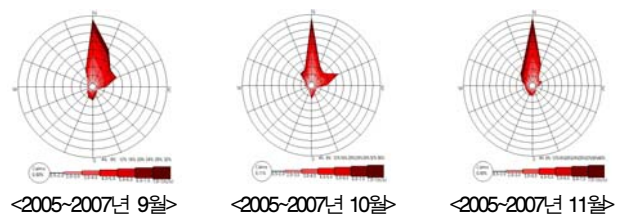
내륙에 위치한 김포공항은 여름을 지배했던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북서풍 계열의 연중 가장 약한 바람으로 바뀌고, 평균기온이 6°C에서 20°C에 이를 만큼 일교차도 매우 커진다. 이렇게 약한 바람과 큰 일교차는 '맑은 날'과 '밤'이라는 조건을 만나면 복사냉각을 일으키는 데 이것이 바로 항공기 지연운항과 결항의 원인이 되는 복사안개이다. 특히 10월은 안개일수가 평균 4.4일로 연중 가장 많은 달인데, 이것은 거의 12°C에 달하는 10월의 큰 일교차와도 무관하지 않다.

#### [제주공항]

섬에 위치한 제주공항 9월 하순경에는 상층의 제트기류가 남하하기 시작하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상쾌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기 시작한다. 점차 해양성 고기압의 세력이 쇠약해지고 대륙의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과하여 기온이 점점 내려가나 다른지방에서는 일교차가 10°C정도인 반면 해양성기후인 제주공항은 6.0°C로 일교차가 크지 않다. 가을철 바람시어 평균발생일은 15일로 4계절 중 가장 낮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 발생원인은 초가을의 태풍과 늦가을의 북서계절풍이다.

#### [울산공항]

남해 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울산공항의 풍향은 연중 북서풍계열이 우세하나 계절별로 보면 봄과 여름에는 해풍의 영향이 가미된 남풍이 많이 불며 가을과 겨울에는 북서-북동풍이 많이 분다. 가을의 평균 풍속은 7.1m/s이며 바람장미를 보면 북풍이 36.7%, 북북동풍이 13%로 나타나고 남풍의 영향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산공항은 낮 시간(09시~18시)동안 계절이 변함에 따라 바람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2005년부터 2007년 9월~11월의 가을철 바람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지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울산공항의 가을철바람변화>



## 주요공항의 가을철(9~11월) 기상특성

### SPECIAL THEMES

#### [양양공항]

동해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양양공항 계절풍이 약한 온난한 날씨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으로 전환되는 해륙풍이 자주 발생한다. 9월에서 11월에 이르는 가을철 해륙풍 발생일수는 월평균 8일이고, 10월은 년 중 해륙풍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해풍유입시점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로 9월과 10월은 10시, 11월엔 11시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해풍지속시간은 9월 7시간, 10월 6시간, 11월이 5시간으로 평균 6시간 정도이며 이러한 월 별 지속시간의 변화는 해륙풍 전환이 일조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㉟ 가을 & 단풍 ㉟



우리나라 단풍은 설악산과 오대산 정상에서 시작되며, 단풍은 산 아래 쪽으로 하루 약 40km씩, 남쪽으로 하루 약 25km씩 남하하는 현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9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단풍은 11월 상순이 되면 남해안 지방의 두륜산과 국토의 최남단 제주도 한라산까지 물들게 되며 대체로 내륙지방이 해안지방보다 10일정도 빨리 단풍이 시작된다.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할 때의 단풍은 산의 20%~30% 가량에 단풍이 드는 것을 말하며, 산의 80% 이상 단풍이 물들었을 때를 '단풍절정기'라 한다.

사계절 기후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단풍은 세계적 절경을 이루고 그 중 금강산의 단풍은 '몰아(沒我)의 경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며, 단풍은 서서히 기온이 낮아질 때 더욱 아름다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 단풍의 멋이 줄어들게 된다.

#### ㉟ 가을날씨관련 속담 알아보기 ㉟

- ▷ 가을 무 콩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  
- 겨울이 추워지는 해는 가을 무 들도 겨울 준비로 뿌리가 길어진다는 뜻.
- ▷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  
- 일반적으로 가을에 오는 강수량은 적은 편이다. 때문에 가을비는 빗자루로 가려 막을 수 있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
- ▷ 가을비는 오래 오지 않는다  
- 가을비는 장마 비처럼 지루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친다는 뜻.
- ▷ 가을비에겐 장인 구렛나루 밑에서도 피한다  
- 가을비는 여름 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하지만 비가 차갑기 때문에 여름 비와는 느낌이 사뭇 다르게 냉기를 느끼게 된다. 이런 가을비가 빗방울 하나하나는 굵은 듯하지만 비의 양도 적고, 빗줄기가 촘촘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
- ▷ 가을 안개에는 곡식이 늘고, 봄 안개에는 곡식이 준다  
- 가을에 안개가 끼면 날씨가 따뜻하여 곡식이 잘 영글어 수확량이 늘게 되고, 봄 안개에는 심한 기온차로 자라는 보리에 병을 발생시켜 수확량이 감소된다는 뜻.
- ▷ 가을 안개에는 풍년 든다  
- 일반적으로 안개는 날씨가 좋은 날 자주 끼게 마련이다. 가을철에 안개가 끼는 날은 일사량이 많아져 벼의 결실이 잘되어 풍년이 든다는 뜻.
- ▷ 임동 전 가위 보리다  
- 충청도 이북 지방에서는 임동 전에 보리 싹이 가위처럼 두 잎이 나와 보리가 잘 된다는 뜻.



# 몽골기상청의 항공기상센터 직원 방문



제2차 한·몽 기상협력회의(2006.10.19.) 합의사항 중 항공기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몽골기상청 항공기상센터 예보과장(Mrs. Myatau Enkhdulam)외 2인 우리의 항공기상 기술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 8월 6~7일간 항공기상청을 방문하였다.

8월 6일 10시경 미니버스를 타고 항공기상청에 도착한 3명의 몽골기상청 직원들은 "Hi~!" 하는 인사말과 함께 밝은 웃음을 보여주며 항공기상청에 들어섰다.

먼저 환영인사로 시작된 청장님과의 간단한 면담을 마치고 예보과장의 항공기상업무소개로 이어졌다. 우리청의 연혁 및 기관에 대한 소개와 항공관측 및 예보, 항공장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몽골대표단들은 항공기상관측장비(AMOS) 및 바람시어 경보시스템(LLWAS) 등을 견학하였다. 항공기상관측을 위해 설치된 장비의 운용과 자료수집과정, 자료 활용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항공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기상현상(호우, 강설, 바람시어, 마이크로버스트 등)을 탐지하는 공항기상레이더(TDWR)의 운용 방법 등 우리장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항공기상예보의 생산시스템 소개와 항공기상업무 ISO 9001 품질인증시스템의 소개로 시작한 이튿날, 몽골대표단은 항공기상예보의 이·착륙예보 및 악기상정보(SIGMET)의 발표, 항공기상예보의 평가부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내년에 예정된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와 관련하여 항공기상청에서 획득한 ISO 9001 품질인증시스템에도 인증방법 및 유지에도 많은 질문을 하였다.

1박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궁금한 게 아~주 많은 몽골대표단들은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일일이 기록하고 질문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짧은 준비기간 동안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항공기상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국제교류를 몸소 실감할 수 있었던 몽골대표인의 방문은 항공기상청이 국제적인 하늘지기로 거듭나는 꿈을 직원들에게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 제12차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항행 계획 및 이행 그룹의 통신, 항행, 감시 및 기상 그룹회의 참가기



(The Twelfth Meeting of the Communication/Navigation/Surveillance and Meteorological Sub-group of Asia/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제1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항행 계획 및 이행 그룹의 통신, 항행, 감시 및 기상 그룹회의가 2008.7.21. - 7.25. 5일간 태국 방콕의 ICA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정보지원과  
박정훈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장 정해순, 정보지원과 박정훈 및 항공안전본부 황준우, 류재만, 한국공항공사 정시택, 인천공항공사 박정빈 등 총 6인이 참석하였고, 미국·영국·러시아·중국·일본 등 21개 ICAO 체약국과 세계 기상기구(WM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항공조종사조직연맹(IFALPA) 및 SITA 등에서 각각 국제기구, 사용자 및 업계 대표로 총94명이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공항행의 계획 및 이행을 위한 통신, 항행, 감시 및 기상 분야 37개의 정보문서 및 52개의 실무문서를 과제별로 15개의 현안으로 분류하고, 사안별 토의와 검토 통해 총46개의 결정문(안), 결의문(안) 및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 ♠ 회의에서 검토된 기상업무와 관련된 주요 이슈 ♠

#### ·새로운 항공기상예보(TAF; Terminal Aerodrome Forecast) 규정

- 2008.11.5. 0000UTC 발효
- 새로운 TAF 형식적용 : TAF에서 시각 표시를 날짜와 함께 사용
- 초장거리 비행을 위한 30H TAF의 발표
- 하나의 공항에는 유일한 하나의 TAF만 유효

#### ·항공기후정보의 수요증대

- 항공기후정보가 항공운영의 의사결정 전략정보화 추세
- 관련 국제단체는 동 기후정보의 지원을 위한 방안연구가 활발함

#### ·세계공역예보시스템(WAFS; World Area Forecast System)의 발전

- 제3세대 세계위성통신시스템(ISCS; International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방송 서비스 : 2009년 말
- 웹 기반 격자예보 서비스 : 2009년 말

#### ·항공통신망(ATN;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Network)의 융합

- 인터넷 프로토콜(IPS; Internet Protocol Suite) 기반 가상 ATN : 2011년

-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국제항공조종사조직연맹(IFALP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ir Line Pilots' Associations)



## 제12차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 항공항행 계획 및 이행 그룹의 통신, 항행, 감시 및 기상 그룹회의 참가기

(The Twelfth Meeting of the Communication/Navigation/Surveillance and Meteorological Sub-group of Asia/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그 밖에 동 회의의 주요 분위기를 보면 세계 항공계는 과거의 시설 투자에서 결과를 기대하는 성과기준 항공항행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다양한 항공기상정보 요구증가와 더불어, 항공기상정보의 제공방법이 자동화 및 사용자 지향에 따른 항공기상정보의 유용성 문제가 새로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동 지역에서는 항공기상정보 유용성 달성목표 95%를 위해 각 계약국에 지속인 노력을 강조하며,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에, 유용성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생산이 사회-경제 편익증진에 일역을 함을 상기해 본다.

끝으로, 동 ICA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은 금년 들어 개국 60회를 맞이한다. 이에, 참가자들은 동 사무국의 60회를 축하하며, 차기 동 회의를 2009.7.20. - 7.24. 5일간 동 지역사무국으로 다시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다음 회의를 기대하며 발길을 돌렸다.



[ICAO CNS/MET SG/12 of APANPIRG, Bangkok, Thailand, 21-25 July 2008]

*The Twelfth Meeting of the Communication/Navigation /Surveillance and Meteorological Sub-group of Asia/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 WMO 항공세미나 참석 CAVOK의 나라 오만을 다녀와서



예보과  
임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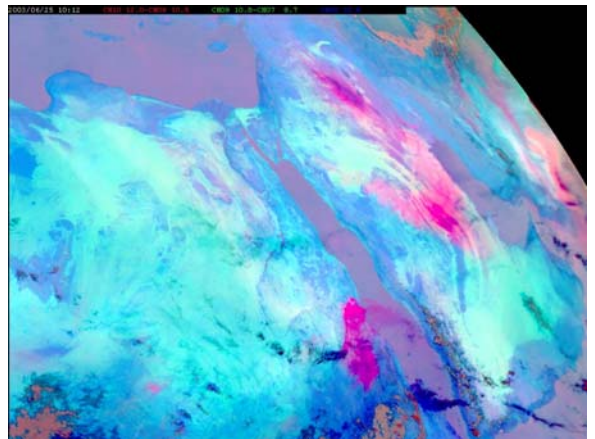
"오만에서 열리는 WMO Aviation Seminar에 추천 되었습니다"

"아, 네 네??" 오만이라는 말은 들은 나의 첫 반응이었다. '오만이 어디지? 아프리카 어디쯤인가?' 지도를 열심히 찾았더니 어라,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에 있는 나라였다. 처음 들어보는 나라이고 중동이라는 말에 덜컥 걱정이 앞섰다(나도 차도르를 쓰고 다녀야하나 심각한 고민도 했었다).

이런저런 걱정을 안고 인천공항에서 밤 11시 5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두바이를 거쳐 오만 무스캇 공항에 도착을 하니 터번을 쓰고 하얀색의 중동 복장을 하신 분이 나의 이름을 쓴 종이를 들고 맞이해 주셨다. 다른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을 기다려 호텔에 도착 후, 낮 동안 주변을 둘러볼까 하였으나 오만은 토요일이 주중의 시작으로 도착한 날이 금요일, 주말이라 모든 가게의 문이 다 닫혀 있어 호텔에서 오만에서의 첫날을 보냈다.

이튿날 모든 참석자들과 강사진과의 첫 만남이 있었다. 강의장소는 무스캇 대학으로 참석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미얀마, 니기아 등 아프리카에서 많았으며 러시아, 부탄, 홍콩, 태국 등에서도 있었다. 강사는 오만기상청의 직원분들과 Met Office에서 두 분이 직접 참여를 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Met Office 직원 2인이 하였다.

주요 강의내용은 항공기 사고를 일으키는 난류, 착빙, 하층운, 저시정, 대류운, 뇌전 등에 한 발생조건 및 사고 사례에 대한 것으로 강의와 실습을 반복하였다. Met Office에서는 Tephigram(SkewT-log P)을 분석함으로써 연직구조 파악을 하여 예보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도 실시해야 될 점으로 느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위성자료를 RGB로 표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였다. 그리고 Met Office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소개가 있었는데 특이할 사항은 아프리카에만 맞는 모델 결과를 산출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이였다.



또 다른 강의는 오만의 기상에 대한 사례분석이였다. 오만의 날씨는 연중 맑은 날씨와 높은 기온을 나타내 기상청 분들이 농담 삼아 일년 내내 CAVOK을 내도 90%이상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할 만큼 날씨의 변화가 없는 곳이지만, 사막지대로 Dust Storm의 피해가 많았다. Dust Storm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없어졌던 호수를 다시 만들고 사막화의 진행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하고 있었다.

· CAVOK : 시정이 10km이상이고 5000ft이하에 구름이 없으며, 중요 일기현상이 없을 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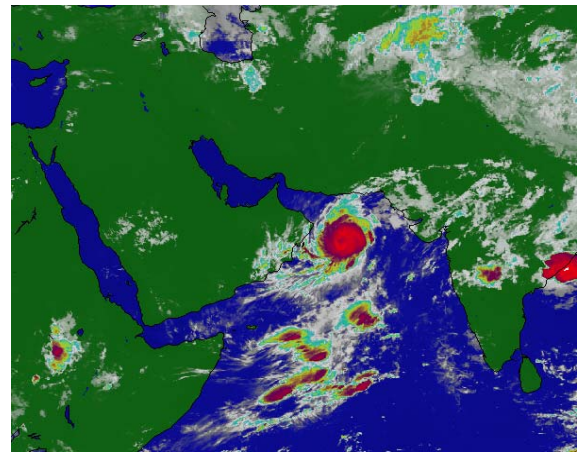




# CAVOK의 나라 오만을 다녀와서



오만에 대한 특이한 사례로 2007년 6월 Topical Cyclone인 「GONU」 이었다. 오만은 연간 강수량이 76mm로 매우 적으며 Cyclone의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나 110년 만에 오만 수도인 무스카트로 「GONU」가 지나가면서 이틀 동안 400~500mm의 강우량을 기록하여 도시전체를 일주일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그 외 기타강의로는 ICAO에서 규정하는 SIGMET과 WMO에서 요구하는 예보관 및 관측자의 기본 요건과 교육조건에 대한 강의로 참가국들이 대부분 개도국인 관계로 기본적인 설명들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강의 및 사례분석 내용도 좋았지만 이번 세미나 참석으로 중동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처음 며칠은 여성에게 중동이 위험하다는 생각만으로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호텔에 있었지만 요르단에서 참석한 라에드씨의 도움으로 밤나들이(?)를 시작할 수 있었고 중동이라고 하여 여성에게 그렇게 위험한 나라는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도움을 준 라에드씨는 KOICA 프로그램으로 한국기상청에 한 달간 방문하여 기술을 습득하였고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아 "Wonderful Korea" 를 외쳐 나를 쫓스러운 동시에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요르단 외에도 이번 참석자 중 파키스탄 본도 한달과정을 다녀오셨다며 반가워 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가져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을 습득만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수를 하는 나라라는 부듯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세미나 참석으로 기술 습득 이외에 여러 나라의 항공기상 실정을 듣고 본 바로, 우리나라의 항공기상이 결코 뒤지지 않고 있고 앞서고 있다는 자부심과 이제는 우리나라도 개도국 등에 기술 전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다.



<http://www.digital.go.kr/> 동네예보를 경험해보세요!



# 기상청 3시간 간격 동네예보 10월 실시!

현재 기상청은 시, 도 단위의 광역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세부 행정단위인 읍,면, 동 까지 날씨정보를 상세하고 빠르게 웹 서비스를 통해 GIS 기반의 그래픽, 시간별, 문자, 음성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동네예보가 시행된다.

동네예보는 공간과 시간을 현재보다 훨씬 잘게 쪼개어 5×5km 규모로 나누어 우리나라 육지 영역 4438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3584개의 읍면동 단위로 예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단기예보와 동네예보의 차이

단기예보	동네예보	
2, 3개 시군 규모	공간해상도	5×5km
시군 단위 (170개)	서비스 단위	읍면동 단위 (3584개)
3일간 하루 단위	시간해상도	2일간 3시간 단위
7종	발표 요소	12종
1일 4회 (6시간 간격)	발표 주기	1일 8회 (3시간 간격)

### ☑ 동네예보 실시 후에는 어떻게 바뀌나?

내용	현재(일일예보/3시간예보)	동네예보
요소다양화	기상개황, 기온, 하늘상태, 강수확률, 풍향·풍속 등	상대습도, 신적설, 강수량 등 12개 기상요소
공간상세화	광역(35개)/국지(87개)	5km 간격, 37,697지점(약 308배)
정량화	일단위	정량예보(강수/적설), 3h간격
예보형식	문자, 그래픽	문자, 그래픽, 시계열, 음성, 격자점
예보전달	일방형 전달	웹 기반의 대화형
활용성	날씨정보 단순 사용	응용 및 가공 활용 가능
예보생산	1일 4회/8회 예보관 입력	1일 8회(3시간 간격) 자동생산 후 그래픽, 문자 수정

## 동네예보 Vs 항공기상예보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는 동네예보와 비행장에 대한 예보를 생산하는 항공기상예보는 한 지역에 대한 포인트 예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구분	동네예보	항공기상예보
예보구역	읍면동예보, 5km 간격	공항 내
예보요소	기온, 하늘상태, 강수량, 적설 등	풍향, 풍속, 시정, 운고, 기온 등
예보형식	문자, 그래픽, 시계열 등	ICAO Annex3 표준 형식에 따른 코드, 그래픽, 시계열 등
예보시간	3시간 간격	6시간 간격
표출화면		
제공홈페이지	<a href="http://www.digital.go.kr/">http://www.digital.go.kr/</a>	<a href="http://kama.kma.go.kr/kama/">http://kama.kma.go.kr/kama/</a>

# 날씨 ON 개국 & 131 기상콜센터 개설

## - 기상청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 7월 1일 개국 날씨ON -

기상청은 7월 1일 오전 11시,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과 기상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 개국행사를 갖고 정규방송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작년 9월에는 기상방송 전용홈페이지를 만들고 금년 6월까지 시험방송을 거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여 왔다.

### □ 「날씨ON」 전용 홈페이지



- www.weather.kr
- www.weather.go.kr
- tv.kma.go.kr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을 통해 일기예보의 상세한 해설과 태풍, 황사, 집중호우 등의 긴급한 기상정보 또는 예보와 다른 기상실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과학적 해설인 기상 속보와 날씨정보 데이터 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기상청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은 ‘신속한 기상정보, 자세한 기상해설’을 모토로 정하고 기상전문인이 출연함으로써 기상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상재해 경감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 □ 「날씨ON」 주요 서비스

- 단기예보 해설, ○ 주간예보 해설, ○ 장기예보 해설, ○ 동네예보, ○ 웰빙 날씨 포커스
- 기상속보, ○ 날씨ON 뉴스, ○ 날씨정보 데이터 방송, ○ CCTV, ○ 주문형 비디오, ○ 기획 영상물

## - 기상청, 「131 기상콜센터」 개설 -

**자동기상전화 131(기상분야의 119전화) 보다 자세한 기상정보를 상담원이 24시간 제공**

기상청은 대국민 기상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131기상콜센터를 서울 종로구 송월동 소재 기상청 별관에 설치하고, 2008년 7월 31일 15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31기상콜센터에서는 상담원 30명(10명×3조)이 교대로 1년 365일 24시간 전화 기상상담에 응하게 된다. 131기상콜센터 상담원과 연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131을 눌러 원하는 날씨정보를 선택 청취한 후 안내에 따라 “0”번을 누르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131기상콜센터가 안정화되고 금년 여름철 방재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5일까지는 기존처럼 기상관서도 상담을 병행하지만 그 이후에는 131기상콜센터로 기상상담업무를 일원화하고 예보부서는 일기예보 생산에 전념하게 된다. 기상청은 131기상콜센터를 개설·운영함으로써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주공항기상실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김포국제공항으로부터 165km,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250km, 근산공항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한 고통요중 지인 청주국제공항의 민간공항의 항공기상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공항기상실**을 소개합니다.



1997년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전국 4번째로 지정된 개항지입니다. 상해, 심양, 북경 등 국제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부정기 국제 노선으로는 청주-삿포르, 청주-홍콩 등이 운항되고 있으며,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에서 일본노선의 정기노선 취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상주사  
노성길

청주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청주공항기상실은 북위 36° 43' 동경 127° 30' 해발고도 58m에 위치하여 지형적, 기후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부 내륙형에 해당되며,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 남동쪽으로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능선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북북동쪽으로 10km지점에 초평저수지가, 북북동에서 남서쪽으로 미호천이 흐르고 폭넓은 관개지역이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우암산 줄기 사이로 청주시내가 위치하며 남서쪽 6~8km지점에는 청주공업단지가 밀접해 있습니다.



청주공항기상실은 1997년 청주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총 3명의 인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상관측, 예보 및 특보 통보 등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비정상 운항은 대부분 안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안개발생일수를 조사해 본 결과, 가을철인 9~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청주공항기상실에서는 가을철 안개 예보를 위해 많은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올 10월부터 24시간 개방형 공항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24시간 개방형 공항이 된다면 입출항 스케줄이 다양해져 국내외 항공사의 청주공항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동남아권의 심야 관광객 유치와 국제노선 확대 등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야간 악기상시 그동안 제주공항이 대체 공항으로 이용해 왔으나 유류 절약 차원에서 각 항공사에서는 청주공항을 대체공항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청주공항기상실은 여러 기관들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청주공항 24시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기상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내 방황의 마침표 기.상.청.

임상병리, 종합병원 검사실, 분자생물학, 기상청 이게 나의 화려한 방황(?)이다. 남들이 왜 비전공인데 이곳 기상청을 선택했냐고 하면 나는 바보같이 아직 멍청하다. 하늘이 좋아서, 구름이 너무 좋아서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 쑥스럽고 어색해서 속으로만 대답한다. **얼른 자신 있게 “생명을 공부하다 하늘을 보니 너무 좋아져서 기상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노력해야겠다.**

2008년 5월 13일....

내가 그토록 바라던 기상청에 첫 발령 받던 날이었다. 그리고 더불어 내 방황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다. 발령 통지 받고 임명장을 받으러 가던 날, 그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니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내가 공무원이 되고 정식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던 날, 공무원 선서를 하며 마음속으로 큰 다짐을 하고 그토록 바라던 임명장을 받던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속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이어진 우리의 일주일 간의 집합교육과 두 달간의 OT교육. 일주일간의 항공기상초급과정은 처음 항공기상을 접한 나에게 매우 생소한 교육이었다. 대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나는 입사 시험 준비부터 어려운 점이 많아, 많이 알려고 노력했었지만 항공기상은 따로 공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 막막하기만 했던 항공기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내가 하는 관측에 비행기가 이착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일주일간의 집합교육을 마치고 우리 동기들은 각자 발령지로 헤어졌다.

발령지에서 두 달간의 OT교육은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했던 두 달이란 시간...

상일근과 복근무를 하면서 실무에 대해 많은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고 자부심을 가지게 해준 교육이었다.

신규자가 오면 악기상을 물고 다닌다고 했던가?

내가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온갖 악기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저서정으로 시작해서 뇌전, 강풍, 바람시어 등등....



제주항공기상대  
조혜영

악기상님들 덕분에 나는 많은 것 배울 수가 있었다. 우리 기상대 가족들도 악기상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셨다. 악기상 때문에 바빠서 내가 경리적거릴까 걱정했는데 이럴 때 많이 배우는 것이라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다. 그런 중에 나는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더욱 더 노력했고 그렇게 두 달은 금세 지나가 버렸다.

드디어 근무투입!

여태껏 없었던 두 달 교육, 그 후 근무를 시작한 것이라 무지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웬만한 악기상은 다 겪어 봤기에 완벽하게 소화해 내야 된다는 부담감 그래도 나를 위해 열심히 가르쳐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임명장 받던 그 날의 벅찬 감정을 생각하며 용기 있게 근무한다. 비록 비전공에, 이곳저곳 많이 헤매다 남들과 다른 신발을 신고 늦은 밤을 기상청에 내딛었지만 같은 기상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란 저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시고, 짧은 일주일이지만 외로움을 느낄까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던 항공청 기획운영과, 예보과, 정보지원과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디가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제주항공기상대-대장님과 기상대 가족들께 바쁜 와중에도 많은 것 가르쳐 주시고 항상 뒤에서 많은 것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다.

항공기상청 파이팅!!!  
제주항공기상대 파이팅!!!^^



오순의 증반! 워드프로세스 1급 도전기

김한준 예보관님의 1급 워드시험 자격증 도전기입니다.  
실수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보관님의 도전! 진정 아름다운 혁신사례입니다.



Innovation

☆ 오순 : 순 살을 나타내는 말

“저.....학부형은 시험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시험 보러온 수험생입니다.”

수험표를 보여주는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올라 벌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나이 50대 중반을 넘어서었는데도 이렇게 순진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다. 당당한 모습으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예보과  
김한준

하긴 교실 안에 앉자마자 슬며시 고개를 돌려 주위를 돌아보니 수험생들이라고는 학원  
에서 단체로 시험을 보러온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였고, 나이든 사람이라고는 시험감독관 20대  
청년 2명이 고작이었다. 정말 이 나이에 내가 올 자리가 아닌 듯 싶었다. 당당하게 보여 질 수 없는 불편  
하고 어색한 자리였다.

책상이 낮아 긴 다리가 책상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 기린 물먹듯이 옆으로 길게 뻗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아이들 떠드는 소리 가운데 “저 아저씨 시험 보러 왔나봐” 하는 말이 나를 향해 이상하게  
보는 듯이 떠들어 대는 소리가 아주 크게 귓전을 울렸다. 참 이런 순간 쪽팔리는 내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험이라는 것은 학창시절 때처럼 나를 두근거리게 하고 흥분하는 마음을 진정  
시키기 위해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수첩싸인펜을 손가락에 끼고 빙글 빙글 돌리면서 죄인처럼 무언가를  
반성하고 있었다. 왜 진작 자격증을 따 놓지를 않았을까...

나는 금년 초 업무계획을 짜면서 자기개발부분으로 워드1급자격증과 영어자격증을 목표로 삼았고  
영어는 숙소 부근에 있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직장이 있는 청년들만(청인회화반) 있어  
(그곳에서도 50대는 나 혼자) 다닐 만 했다 경쟁시대에 회사에서는 성과주의로 원하는 만큼 성과 내기를  
독촉하고, 기술직은 전문직에 맞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기위한 자격증 획득은 필수가 되었다.  
능력을 갖춘 개개인은 결국 조직에서 바라는 일 잘하는 능력 있는 해결사가 될 것이다. 나 자신을 혁신  
하고자 적어도 무언가 자기를 혁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에서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이란 것이 없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 이었다.

말과 함께 처참을 방문하고 수없이 많은 컴퓨터수험서를 살펴보고 내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여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 실기는 이미 잘하고 있었지만 용어가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었다 체계  
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나는 그것이 늘 문제였다. 직장에서야 책을 보고 학습을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지만 필기를 치러 수험장에 들어설 때에 왜 그리 발걸음이 무거운지 학교운동장에 들어설 때 까지는  
학부형이 자식 때문에 자가용 갖고 함께 온 것으로 다들 보았겠지만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나는 제발  
어떤 나이든 중년이 한명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었다. 문제지를 외우고 또 외우고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달달 외워서 좋은 점수를 얻어 고득점 합격을 하게 되었다.



김한준 예보관님의 1급 위드시험 자격증 도전기입니다. 늘 노력하시는 예보관님 열의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실수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보관님의 도전! 진정 아름다운 혁신사례입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이 기쁨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실기를 볼 때 또 처음처럼 초등학교학생들과 하는 마음에서였다. 실기는 늘 하던 일이니 자신을 했지만 그래도 시험은 늘 불안한 것이다. 틈틈이 문제지를 놓고 시간을 재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였고, 드디어 실기 시험을 치게 되었다. 이번엔 학교가 아닌 울산상공회소에서 상설로 실시하는 것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한 30명 정도만 보게 되어 있었다. 게시판에 좌석표가 붙어있고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야~ 50이 넘는 할아버지도 있다. 내가 좌석표를 확인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어떤 난쟁이 같은 작은 키에 두꺼운 안경을 쓴 못생긴 초등학교생이 라는 말 이었다 . 이- - -린 이---린 나는 뜨끔하였다 처놈과 떨어져 살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런데 바로 내 옆자리에 조금 천 재수 없게 말하던 그놈이 앉는 것이 아닌가 ....

하지만 처음보다는 느긋한 마음이었다. 한번 팔린 쪽인데 하면서....그놈도 긴장을 했는지 한번 쳐다 보더니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컴퓨터화면에 시선을 집중하고 나한테는 더 이상 시선을 주질 않았다. 긴장 속에서 2차 실기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 평소에 빨랐던 내 손길도 시험장이라고 더듬거리고 영문도 틀리게 치고 ....참으로 진정되기 5분까지는 더듬더듬..... 아차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쪽팔리면 안 되는데,..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래도 워낙 해본 숨씨라 문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수청까지 하고도 여유까지 생겼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내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이 사회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다는데 어찌할 것인가.

기대한 것처럼 나는 2차 실기도 합격을 했다. 이제 인터넷으로 자격증신청을 해놓고 여유로움에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1급 쪽팔림으로 바로 나 자신을 혁신했다는 아주 작은 혁신사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ㅎㅎㅎ 나는 계속 내 자신을 혁신 할 것이고 쪽팔려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는 것 이라면 그것 또한 진정한 용기일 것이다. 공부를 하는 것이 어느 때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부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에는 어떤 자격증에 도전을 할까 지금부터 또 걱정이다. 여러분 쪽 팔려도 혁신 합시다!

*Innovation* (h) (h) (h)

2008년 현재 항공기상청의 모습을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성공적 수검 공로인정(6.4)  
세계 항공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제규정 이행실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공안전종합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우리청은 항공기상분야에 그 공로로 인정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제3차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 협의회 개최(7.1) ▷  
항공기상서비스에 소요되는 생산원가를 근거로 항공기상 정보사용료 인상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국제항공운송 협회(IATA), 항공사운영위원회(AOC), 대한항공(주), 아시아나항공(주) 및 외국항공사 등 관계자 등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한항공 SkySafety21인터뷰(7.11)  
대한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운항잡지 스카이 세이프티21(SkySafety21)의 “현장탐방” 코너에 항공기상청이 소개되었다. 항공기상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고, 항공기상예보가 생산되는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직 기상인 초청 간담회(7.24) ▷  
새롭게 변한 항공기상청의 업무 소개와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신 전직 기상인 선배님들과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초청 전직기상전문인 : 박용대·박태경·김화겸 선배님



◁ 전직 기상선배님 외부초청 강연(8.28)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신 홍사선 기상선배님의 <기상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예보에 임하는 마음 가짐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상인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발행 • 이성재 | 편집위원장 • 임용한 | 교열 • 권영근 | 편집위원 • 임주연 김봉진 박정훈 지지숙 이호용

하늘 기자단

예보과 • 최정아 | 김포 • 윤정식 | 제주 • 박한나 | 무안 • 장길수 | 울산 • 김경록 | 통신소 • 박창현 | 김해 • 김용호  
청주 • 김지원 | 대구 • 박금옥 | 여수 • 이윤교 | 양양 • 김지은 | 광주 • 박준혁 | 포항 • 하해성 | 사천 • 이영일